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2월 5일 ( 제884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사랑은 대화로

당신은 누구와 대화하는가? 누구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No,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일 것이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 대화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이치로 본다면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 된다. 가족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친구와 이웃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사랑은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연애했던 사람은 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왜 그리 할 말이 많은지 통금을 넘기면서까지 못 나눈 이야기가 남았었다. 그래서 다시 밤새 편지를 쓰고 전화를 했었다. 왜? 사랑하니까. 요즘 가족 간에 대화가 없다. 부부 간에, 부모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 바빠서가 아니다. 사랑이 식어서다. 사랑이 식었을 때 가장 빨리 나타나는 증상이 대화의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사랑이 식으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다. 사랑이 식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사랑을 회복하자.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위의 것을 역으로 풀면 된다. 대화를 시작하는 거다. 아내와 남편이 앉아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는 거다. 처음에야 입이 잘 떨어지지 않겠지만, 하다보면 할 말이 많아지고, 결국 속내까지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릎을 꿇어 대화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점차 회복된다.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를 낳고, 오해가 길어지면 남북처럼 원수가 된다. 그러나 대화하면 오해가 풀리고 정이 싹튼다. 그래서 대화는 만사형통, 만병통치약이다.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과 대화하라.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분위기로 12월이 가고 신년의 들뜬 분위기로 구정까지 1월이 다 간 것 같다. 그렇게 어느새 새해도 한 달이 지나버렸다. 연말연시분위기에 휩쓸려 덩달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 핑계거리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017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기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Trump) 정부로 인해 예상되는 미국의 보호무역공세나 지속적인 북한 핵 위협, 그에 대응한 사드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하신다. 정말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이 절절히 느껴진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룩한 나라인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 위기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땀, 불굴의 인내로 이룩한 나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책무가 오늘 의 우리에게 있습니다. 북한의 오판으로 만일 전쟁이 재발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고 국토는 초

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참복을 누리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도 없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내일에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터를 우리는 매일 닦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6:12~13).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와 번영이 따랐지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THAAD) 배치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중 국과의 마찰, 과거사로 인한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등, 우리 정부가 풀어가야 할 외교적 난제들이 산적하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동북아 평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적극적인 외교력이 발휘되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할 리더십이 공백상태인지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 국가리더십의 조속한 복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로 치달는 일이 없어야겠다. 제발 일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성경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망한다.

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시리아 난민의 실상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모두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단에 서실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촉구하시는 메시지다.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통한의 메시지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켜낸 그 값진 공로로 오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철

만, 역사를 잊고 말씀을 버린 불순종의 이스라엘은 다시 처참한 노예로 전락해야 했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그분이 주신 평화, 이를 손상시키는 그 어떤 도전에도 우리는 담대히 맞서 싸워야한다. 국가적으로도 주적 북한정권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주적이 존재한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하신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26:12~13)



# 믿음의 선친들의 공통점을 깨달으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창26:12~13).

여기 ‘이삭’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당대에 백배의 축복이라니...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모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거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리 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 뒤서도 아닙니다. 이삭은 그만큼 대가를 치렀기에 그런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국땅에 와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안 해본 농사를,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지으려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것뿐이면 다행이려만 이삭을 힘들게 한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 그랄 목자들이었습니다.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지라 이삭은 땅을 개간하면서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우물을 파고나면 그랄 목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네 차례나 그랬습니다.

## 살아 있는 물은 숫구치는 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네 번 정도 실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할 겁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다. 이삭은 반드시 농사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필코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이 네 차례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시 우물을 파게 했고, 마침내 다섯 번 만에 큰 우물인 ‘르호봇’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요즘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었을 테니 무진장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 우물을 파고 땅을 일궈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뭔가 일을 이뤄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기필코’ 정신이 있습니다. 압박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 불어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이 되어도 기어이 축복을 받겠다던 야곱이 그랬고(창32:22~32), 3년 6개월 동안 단련된 하늘 문을 열기 위해 갈멜산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가 그랬고(왕상18:19~46),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며 엘리야를 좇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왕하2).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 역시 임전무퇴의 정신,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기필코 정신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7~8).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끝까지 구하지 않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즉 기필코 정신이 없어서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이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친들의 삶을 보면 그리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험난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가 왕자로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다. 그를 이리저리 굴려서 낮아지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그를 능력자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솔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통솔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단 번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들

로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피나는 노력과 눈물겨운 희생을 치르게 한 다음에 그곳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 건지시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에스더의 희생의 금식기도와 용기를 담보로 부림절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할 때 안쓰러워서 그것을 빼주면 나비는 절대 날지 못하고 곧 죽습니다. 나비가 작은 구멍을 빠져 나오고자 애

쓰는 동안 그 고치에 있던 액체가 흘러 나와 날개를 적시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단련된 날개로

변화해 힘차게 날아오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자식이라고, 사대 독자라고, 무남독녀라고 ‘오나오나’ 하면서 키운다면 그 자식은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 바람만 세계 불어도 죽습니다. 그러니 한 단체의 지도자, 한 나라의 영도자, 한 시대의 영적 선지자로 세우는데 그냥 세우시겠습니까? 눈물도 흘려보고, 쓴 맛도 보고, 울부짖으며 간구도 하면서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경험도 얻게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갱겨루족들이 많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아직도 부모에게 붙어사는 자들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왜 나잇값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압니까? 다 부모 잘못입니다. 너무 곱게 키우니까, 다 해줘 버릇hani니까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습니까?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사회에서 구실이나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가 달아주는 날개로 살 겁니까? 남이 달아주는 날개는 언젠가 떨어집니다. 내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호랑이도 우리 안에서 사람이 주는 음식

이나 먹고 자라면 고양이처럼 됩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애교나 떨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태생이 고양이이라도 야생에서 키우면 호랑이 버금가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도 새끼를 기를 때 벼랑에서 떨어뜨려 스스로 날게 짓을 배우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친들을 하나 같이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하신 것은 야생의 호랑이로 자라 세상을 향해 포효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 능력을 키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치를 빠져나올 때의 고통이 결국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외삼촌을 통해 단련하신 하나님,

##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가치를 모른다

바울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당신도 훈련을 이기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졌다고 울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빼앗기고 빼앗겨도 다시 일어나 우물을 판 이삭처럼 말입니다. 또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게 하세요. 넘어졌다고 바로 일으켜주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귀한 것도 알게 하세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공짜는 쥐뿔에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훌륭한 투자자의 조건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투자자인 코스트라니는 예리함, 직관, 상상력을 꼽았습니다.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직관’이라 함은 오랫동안 주식투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능력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상상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채면 즉시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끌어내는 융통성이 좋은 성격인데 반해, 고집스러운은 가장 나쁜 성격입니다. 물론 확신은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즉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이라 함은 100에 산 주식이 9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도 계산에 넣습니다. 주식 시장의 논리는 일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주식 시장에서 논리적인 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주식이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가정 하에서 좋거나 나쁘게 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가 나빠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일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부도 직전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하지만, 거의 망해가던 기업이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그 기업의 주가는 몇 배로 올라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논리에 확신이 있을 때는 주식시장에 있는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에 반해 행동합니다. 대중의 움직임에 역행해서 행동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가 주식을 팔 때, 또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보일 때 사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 시장이며, 투자란 몇 년을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총회장 목사님은 성공하려면 ‘자기관리’와 더불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 이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세상을 보는 창 ::

# 신앙의 금메달리스트

체조 금메달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금메달은 목숨 값이라고 한다. 그것은 목숨을 거느냐, 아니면 머뭇거리며 목숨을 걸지 못하느냐에 따라 금과 은의 색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철봉경기에서도 착지 전, 선수는 철봉대를 손으로 꼭 붙잡고 위아래로 돌기 시작해서 한바퀴, 두 바퀴를 돌며 가속을 붙여 철봉을 잡았던 손을 놓고 몸을 던져 공중에서 몸을 꼬아 비틀면서 고난도의 착지를 잘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단다. 그런데 그 선수의 경험에 의하면 착지를 시도하기 전, 철봉에서 손을 놓고 몸을 던지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이란단다. 자칫 몸의 균형을 잃고서 거꾸로 땅바닥에 떨어지면 목이 부러져 불구자가 되거나 죽는 일이 다반사이고, 또한 철봉에서 손을 놓고 몸을 던지는 그 순간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경기를 망쳐 금메달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다. 신앙의 금메달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신앙이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출(出)!', 떠나는 것이다. 출애굽의 여정이 예시하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옛 구습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멈춘 생각에서 출(出)!, 떠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듯이, 다윗과 바울이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모험을 떠났듯이 말이다. 철봉대에 매달려 서너 바퀴를 돌아 가속도를 붙여 도는 것처럼, 극한상황으로 몰아가 자신을 던짐으로 거룩한 신대륙에 착지하여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있듯이 먼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 철봉대를 놓고 자신을 던지듯,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던지자, 이방인의 복음 선포를 위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로마에 공중제비를 돌아 착지함으로써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란 말씀처럼, 주님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는 먼저 자신이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아닐까?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무감각

내 속 때가 낀 것 누가 알아  
덕지덕지 짝어 바르며  
속옷 없이 치렁치렁 옷매무새 걸치며 벌거벗은 여인아!  
멧 멧 멧 청솔 타는 연기 속에 맞장구치는 남정네야!

가면 탈 뒤집어쓰고  
거짓의 치장과 변장이 아름다움의 극치라 요란을 떠는 자여!  
어찌 파리 떼 뿜잉 소리와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고

눈멀고 귀먹고 코 막힌 타락한 인생들이여!  
퍽어도 패려도 찢려도  
감각 없는 양심이 병든 자여!  
계곡의 폭포 소리 통곡이 없으니  
어둔 밤 더웁고 짜증나는 세상이 되었구나

언제나 찬바람과 함께 올고  
내 친구, 진실과 정직이여!  
겨울 지나야 오겠는고  
봄과 함께 꽃 피며 향기로 찾아오겠나  
벌 나비 찾아오듯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노라

朋友 이초석 목사

:: 귀를 기울이세요 ::

# 인식의 법칙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앞 다투어 착한 기업들을 스스로 홍보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케팅이란 당연히 제조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나서서 제품 홍보를 해주고 있는 축복받은 기업이 바로 ‘오투기’와 ‘LG’이다. ‘오투기’의 창업주 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생전 매달 23명의 어린이에게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해주고, 현재까지 4,300명이 넘는 생명을 살렸으며, 한 복지재단에 주식 300억 원을 기부,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고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은 오투기 現 함영준 회장도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장애인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제품 조립 및 가공을 위탁하였으며,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는 선대 회장의 유언에 따라 작년 오투기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0명이다. 그리고 오투기는 상속세 1,500억 원을 분납하겠다고 당당히 말했는데, 한국의 일등 그룹인 ‘S’사도 16억밖에 내지 않은 사실에 비하면 가히 칭찬할 만하다. ‘LG’도 선행이라면 남부럽지 않은데, LG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에게 지원

을 한 그룹 중 하나로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들 집안에 여러 가지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또, LG가전제품을 구매한 전국 복지시설에 평생 무상 AS를 해주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팔, 다리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의수, 의족을 기부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잦은 술수와 횡포에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등을 벌이며 그들에게 큰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따뜻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보인 착한 기업에 소비자들은 협력자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 전략가 알 리스, 잭 트라우트가 지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는 ‘인식의 법칙’이라는 마케팅 법칙이 나온다. 이 법칙에 따르면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닌 인식의 싸움이라고 한다. 오투기와 LG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선행 기업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는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찬바람이 뽀뽀 부는 차가움의 아이콘인가? 겨울의 훈훈한 난로같은 따뜻한 아이콘인가?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참된 깨달음 ::

# 분노는 나를 깎아먹는 일

얼마 전, 엄마와 함께 자주 가는 마트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고객 응대에 불성실했던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 직원이 다른 고객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앞뒤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그 고객은 좋은 얼굴을 하며 우리에게 화를 참으라고 하였지만, 그 상황 자체가 불난 집에 부채질이었다. 우리는 결국 폭발해버렸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학생으로 보이는 그 고객의 아들이 엄마에게 어디서 큰 소리 치냐고 반말을 하였고, 그 학생의 태도에 더 화가 난 나는 끝장을 볼 작정을 하고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나섰지만,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 학생을 쫓아가려고 했고, 그 와중에 내 힘에 밀려 넘어진 엄마가 무릎을 다치고 말았다. 엄마가 다치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참을 씩씩거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죽기 살기로 화를 냈던 내 모습에 엄마는 엄청 속상해하셨다. 있었던 일을 다 들은

나의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소싯적에 나보다 백배는 화를 많이 내던 아버지도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무런 말쑥도 하지 않으셨다.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서 뒤늦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가족들의 반응에 하는 수 없이 내가 잘한 일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남편이 조용히 해준 말은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내가 그 상황에 있었어도 당신만큼 화를 냈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당신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던 그 학생을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결국 그 사람과 동격의 사람 밖에 되지 못할 것인데 어찌 화를 내서 우리의 수준을 낮춰야겠느냐? 화가 난 것은 백 번 천 번 이해하지만, 그런 식으로 당신 스스로를 깎아 내리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솔직히 나는 여전히 억울하기만 했었다. 분노로 인해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하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모른 채 회개

를 하는데, 문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발로 차지 말라.”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였던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진짜 내가 어리석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성경을 찾던 나는 혼자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않겠다고 또 다시 다짐을 한다. 목사님의 말씀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화 내보야 너만 손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의 아주 완곡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새삼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나를 깎아먹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겠노라 다짐해본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잠12:16),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잠27:3),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욥05:2).

전춘지

ppjee@hanmail.net

## Good News

태평양에 괌이라는 미국령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여행이나 휴가차 즐겨 찾는 곳인데, 그 곳에 가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인이었던 ‘요꼬이 쇼이치’라는 사람의 물건들을 전시해놓은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다 헤어진 군복과 구식 총과 살림도구들을 전시해놓은 이 색적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요꼬이 쇼이치는 괌에서 미군들과 싸웠던

일본군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28년 동안 원시림 속에서 불안에 떨며 홀로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비행기장 활주로가 보이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전쟁 중이라서 비행기가 열심히 뜨고 내린다는 생각을 하며 불안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려 28년 만에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으나 숨어서 나오지를 않으니 사냥하듯이 잡아내었다고 합니다. 그의 비극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비롯된 일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소식을 깨닫지 못한 그에게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나 듣고도 예수님게로 나오지 않는 자는 요꼬이 쇼이치와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 임금님도 가려운 곳은 자신이 긁어야 시원하단다

Even a king needs to scratch himself, where it itches to meet his satisfaction even though he can have others do it.  
皇上也若有痒处,自己挠一挠,才会舒服。

### ♣ 남의 연장만 빌려 쓰다 내 연장 녹슨다

Your tool will become rusty  
if you keep borrowing and using others.  
只借用别人的铁器而使自己的铁器生锈。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 뼈, 관절, 근육을 더 젊게 하는 작전

어떤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한다. 기분이 좋아져서, 스트레스가 풀려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단순히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젊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운동은 남성의 경우 8년을, 여성의 경우 9년을 더 젊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근력 운동은 나이나 체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롭다. 한 예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지방질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한편 근육을 강화시켜 좀 더 기운찬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 허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근력 운동은 뼈에 아주 이로운데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

공증을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뼈는 긴장에 반응하여 형성되는데, 근력 운동 중에 근육이 뼈를 잡아당길 때 뼈를 자극하여 밀도를 증가시킨다. 근력운동은 아령을 들든, 기계를 이용하든, 튜브나 밴드를 밀고 당기든,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하든 어떤 식으로라도 근력 운동을 해주면 좋다. 가장 좋은 골형성 근력 운동 가운데 어떤 것은 외부의 무게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신체를 저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쪼그려 앉았다 서기와 런지(등과 허리를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왼쪽 무릎은 바닥에 닿도록 몸을 내리는 동작)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허리근육 뻘 예방에 좋다. 거기다 상

체 운동과 복부 운동을 더해주면 전체 몸의 안정화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근력 강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의 5%씩을 잃어버리고 만다. 35세 이후 평균적으로 여성이 10년마다 1kg, 남성은 1.5kg씩 소실된다. 근육이 늘어나면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므로 지방이 연소된다. 근력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킨다. 아울러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뼈 조직을 재형성하며 강한 근육이 붙어 있는 근골격계를 만들어 당신의 뼈와 관절에도 이득이 된다. 지구력 강화 운동을 함께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강해진다. 새해에는 내 몸을 위해서 적절한 근력강화운동으로 건강수명을 더욱 늘려보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 YES, NO는 분명하게!

1848년 프랑스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 3세! 그는 나폴레옹의 조카로 4개 국어를 구사했으며 상상력과 통솔력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땅히 ‘No’ 라고 표현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황제의 지위에서 물러나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와의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을 명쾌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No’ 라는 카드를 보류한 채 오히려 자국의 많은 정보들을 비스마르크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다량의 정보를 얻은 독일은 얼마 후 전쟁을 일으켜 프랑스를 침범했고, 황제는 지위를 박탈당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 세대의 특징이 나폴레옹 3세처럼 둘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건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주도성이 낮아 “글쎄요, 아무거나, 나중요, 알아서 골라 주세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결정 장애세대’의 저자 ‘올리버 예게스’는 이 같은 세대적 특징을 ‘메이비 세대(Maybe generation)’, 즉 ‘어쩌면 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직장이나 단체생활을 하면서 윗분에게 ‘No’ 라고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에스맨’과 ‘지당대신’(모든 결정에 지당하신 분부라며 굽신거리는 유형)이란 대명사들이 죽대 없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 ‘No’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착함을 지켜낼 독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선택과 거절이 모두 내 몫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마5:37)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좋다.”는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진다